불교국가 아프리카서 전법 '활발'

대만 · 베트남 각각 센터 건립, 아동 교육 전개

남아공서 고아 교육, 대만 유학
모잠비크에선 베트남센터 추진



아프리카에 '아미타불 케어센터' 등이 생기며 불교 바람이 불고있다.

사진출처=알자지라 뉴스

불교국가들의 아프리카 전법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알자지라 뉴스'는 10월 21일 '아프리카 고아들은 만다린, 불교, 쿵푸를 배운다'(African orphans learn Mandarin, Buddhism and kung fu)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불교 전법에 대해 다뤘다.

'알자지라 뉴스'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미타불 케어 센터(Amitofo Care Centres)에서의 교육과정을 조명했다. 아미타불 케어센터는 대만 '후이 리(hui Li)' 스님이 설립한 곳이다.

1992년 처음 후이 리 스님이 아프리카 방문 당시 아이들의 부모들이 에이즈로 인해 이른 나이에 죽는 것을 보고 원을 세운 이후 2005년 말라위에 건립됐다. 아미타불 케어 센터는 500명의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레소토, 스와질란드, 나미비아 등에도 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곳에서 아이들은 오전에는 교과 과정을 배우고, 오후에는 불교와 중국어, 쿵푸를 배운다. 아이들은 대학 진학이나 다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18세까지 센터에서 기본교육을 받는다. 여기에 대학 진학의 기회도 제공된다.

현재 말라위의 26명의 학생들이 대만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레소토와 스와질란드 센터 또한 5~6년간 운영을 통해 비슷한 수준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특한 점은 아미타불 센터가 대만과 홍콩의 기부자들로부터 70% 가량의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도 기부와 후원을 받고 있다. 중요한 점은 어떤 정부와도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센터 건립 또한 기부된 땅에 세워진다.

이와 함께 아이들 선발 과정도 국가기관, 지역 커뮤니티의 엄격한 과정과 법적인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모잠비크에서는 베트남불교협회가 베트남 불교를 알리고 있다. 베트남플러스는 10월 30일 '아프리카에 베트남 불교가 소개되고 있다'(Vietnamese Buddhism introduced in Africa)는 보도를 통해 베트남 불교협회의 아프리카 활동을 소개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 불교협회(VBS) 중앙위원회는 최근 모잠비크 불교협회를 설립하기 위해 모잠비크 마푸토에서 행사를 열었다. 이와 함께 베트남 불교센터 건립을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이 행사에서는 모잠비크 행정부 관계자들이 참가해 모잠비크 내 불교협회를 인증하는 한편, 베트남과의 우호를 함께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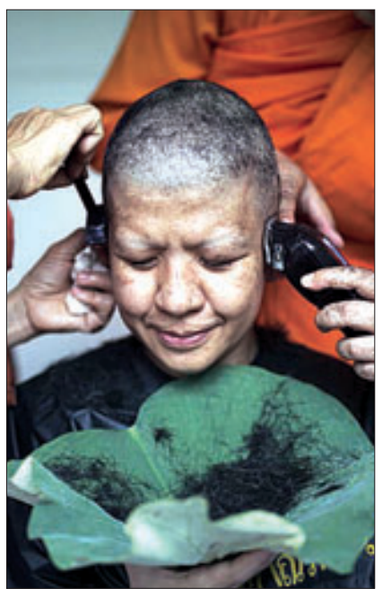
베트남불교협회가 추진 중인 모잠비크 베트남불교센터는 4 헥타르의 대지에 세워질 예정으로 중앙에는 불탑도 함께 건립된다. 센터 건립과 함께 베트남불교협회는 모잠비크 산간 지방인 텍삼비칸 지방의 가난한 학생 300명을

모잠비크 정부 대표인 아라오 리쓰리 씨는 "베트남의 불교 신자들이 베트남 문화를 현지인들에게 소개하고 자선 활동을 통해 빈곤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태국서 비구니 戒壇 생기도록…"

태국 비구니 인권위해 힘쓰는 담마난다 스님 '화제'



여승에 수계를 금하는 태국에 스리랑카를 통해 수계를 받고 들어오는 비구니가 늘고 있다.

사진출처=더 위크

인구의 95%가 불교지만 비구니가 없는 나라, 태국서 여성 출가자들을 위해 애쓰는 비구니가 화제다.

미국 언론사 '더 위크'는 10월 28일 여성은 계를 받을 수 없어 비구니가 없는 태국에 여성들의 출가와 인권에 힘쓰는 담마난다(Venerable Dhammananda, 74) 스님을 소개했다.

태국서 1928년 제정된 승가법은 비구가 비구니에게 계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율장에 따르면 여성이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 양쪽으로부터 계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여성 출가는 가능하지만 '치' 혹은 '매치'라고 불리는 여성출가자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출가한 여성출가자들은 대부분 절에서 요리, 청소, 바느질 등을 한다. 태국의 비구들은 모든 경제적인 활동에서 해방되며 사회에서 정신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로 존경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 해결책을 찾은 비구니 스님이 있다. 주인공은 차츠만 카빌싱. 카빌싱은 2003년 스리랑카에서 비구니계 수지 후 '담마난다 스님'이 되어 태국으로 돌아왔다. 근현대 태국의 첫 비구니 스님이다. 이후 많은 여성 출가자들이 스리랑카서 비구니계를 수지했고, 현재는 송담마칼야니(Songdhammakalyani) 사원으로 모여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고 있다.

비구니 처우 개선 주장
여승에게 수행 장소 제공

비구니 스님은 늘고 있지만 태국 정부와 태국 불교계는 아직 비구니 스님과 주석 사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태국 비구니를 지지하는 세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담마난다 스님은 "태국 여성들도 구족계를 수지한 수행자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태국서 비구니 스님의 온전한 수행 풍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태국의 재가 불자들의 지원과 세계의 관심이 필요하다. 태국 정부와 불교계가 비구니 스님을 감시하고 억압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비구니 스님이 계율을 철저히 지키며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더 위크'는 "비구 스님 중심 태국 불교계가 최근 돈과 성 관련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청정 승단을 바라는 재가불자들의 바람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따라서 비구니 스님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 점점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담마난나 스님은 "불교의 숭고한 정신적 목표에는 성별이 없다"며 "모든 여성에게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나 일부 비구들은 우리를 '무단 침입자' 취급하지만 여성 지도자들의 새로운 물결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언젠가는 태국에도 비구니 계단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美NFL감독, "무상하다. 지난 일 집착말라"

미식축구팀 '불교'로 Cheer up!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연패극복기 화제



인기 미식축구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불교 원리로 슬럼프를 극복했다고 전해 화제다.

사진출처=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공식홈페이지

NFL 인기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연패의 수렁에서 힘들어 할 때, 불교로 극복해냈다고 밝혀 화제다.

'디트로이트뉴스'는 디트로이트 소속 미국프로미식축구(NFL)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짐 칼드웰(Jim Caldwell)감독이 불교로 팀의 사기를 진작했다고 10월 23일 보도했다.

짐 칼드웰 감독이 전해준 이야기의 핵심은 '무상(無常)'이었다.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주제를 담고 있었다고 한다. 무상이란 만물은 항상 변하며, 영원한 실체로 존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불교의 핵심 교리다. 따라서 무상하기 때문에 항상 변화가 있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일에 집착하지 말고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라는 교훈과 연결된다.

'디트로이트 뉴스'는 "감독이 "이젠 지난경기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때다"라고 소리치며 지쳐있는 선수들을 위로했다"며 "연패를 했던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마지막 주에 좋은 승률을 기록한 것은 감독의 멋진 독려 덕분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미식축구는 미국 내 최고 인기 스포츠중 하나인데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는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연고 인기 미식축구팀이다. 극성팬이 많아 최근에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코스프레를 한 팬들의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진형 기자

'앵그리 아시안 불자' 아론 리 사망

미국 젊은 세대 인기 불자
오랜 암투병 끝 결국 사망



미국 젊은 세대에 불교를 포교하는데 큰 역할을 한 아론 리의 사망소식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사진출처=라이언스로어

아시아계 혼혈로 '앵그리 아시안 불자' 블로그를 운영하며 미국서 포교에 힘쓰던 아론 리(Aron Lee)가 사망했다.

'라이언스로어'는 11월 7일 '앵그리 아시안 불자(Angry asian buddhist)'를 운영하며 불교 포교에 힘쓰던 아론 리(Aron Lee)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아론 리는 34세의 이른 나이에 사망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아론 리는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했다. 골수 이식 수술 등 많은 종류의 힘든 수술을 받았지만 항상 낙관적이었다는 후문이다. 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수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을 찾아 추억을 공유하고 애도하는 자리를 가졌다.

'라이언스로어'는 "그의 글들은 사람들에게 미국 불교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줘왔다. 특히 젊은이들은 그의 글을 보며 불교와 가까워졌다. 가끔 강한 어조의 글들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면모가 신뢰성을 더해주기도 한다. 여기에 따뜻함과 위트까지 더해진 글이었다. 그의 글은 마치 불교에 보내는 러브레터 같았다"

아론 리의 생전을 추억했다.

박진형 기자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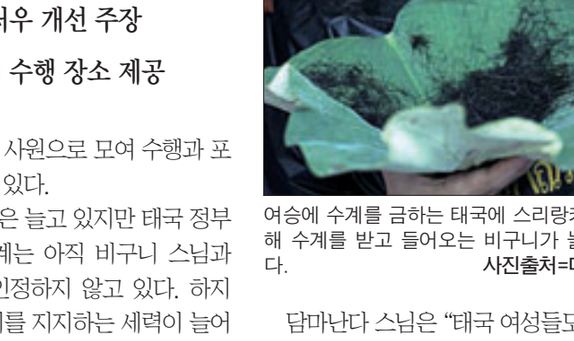
귀사문석(貴蛇炆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09-651인 의료기기 입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기도할 때는 좌복으로,
취심시에는 온열 매트로!!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A형 50㎝ × 100㎝ | B형 65㎝ × 165㎝

올 겨울 추위는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완전 차단)과 함께!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 리베로빌딩 5층
■ 문의전화 : 031)595-8767, 010-4399-4326 선재생활건강(주)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면발광 LED 인등



수법미단 당장업일체
단집

발명특허 제10-1350047호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장엄을
성불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